

# 경향신문

## 대중의 땀과 정성, 거장의 손을 통해 예술이 되다

박경은 기자 king@kyunghyang.com



바라캣 서울 제공

대중들의 지혜와 정성이 의미있는 예술작품으로 탄생했다. 하나씩 놓고 보면 별 볼일 없는 작업일지 모른다. 하지만 대가의 기획력과 손길을 거쳐 생명력을 부여 받았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 강익중의 ‘내가 아는 것’, 그리고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평생공로 황금사자상을 받은 엘 아나추이의 ‘관용의 토폴로지’다.

### ■관용의 토폴로지

벽 전체에 걸쳐져 있는 대형 장막은 전시장에 들어서면 이들을 주술의 세계로 안내하는 관문같다. 마치 저 장막을 지나면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으로 순간이동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엘 아나추이의 태피스트리(그림을 짜 넣은 직물)다.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평생공로 황금사자상을 받은 그는 아프리카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다. 그의 작품은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팔라스트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다.

그의 태피스트리는 알루미늄 병뚜껑, 철사, 구리끈 등 ‘쓰레기’로 만들어졌다. 자세히 보면 납작하고 네모나게 만든 병뚜껑 조각들이 구리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머물렀던 나이지리아의 작은 마을 느슈카에 버려져 있던 병뚜껑들이다. 단순히 소비되고 버려진 병뚜껑이 아니라 식민시대 불합리한, 반강제적 무역협정에 따라 수입된 제품의 흔적들이다.

지역 주민들은 그와 함께 병뚜껑을 모으고 납작하게 가공하며 조각들을 완성했다. 엘 아나추이는 “버려진 병뚜껑에는 이를 사용하고 운반하고 다시 모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얽혀 있다”면서 “이 작업은 내가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태피스트리를 만들어 온 그의 작품은 구미권 국가에 의해 식민지로 유린당했던 아프리카의 아픈 역사를 소환해 낸다. 제목에 사용된 ‘토폴로지’(topology)는 연결과 관계에 의해 변형되는 공간과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하는데, 작가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아프리카 출신으로 작가를 구분짓던 기존의 예술분류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안하는 은유적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서울 소격동 바라캇 서울에서 11월26일까지 그의 태피스트리 3점과 판화 6점을 볼 수 있다.  
(02)730-1949



엘 아나추이의 작품 'skylines'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처럼 병뚜껑을 펼쳐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 연결했음을 알 수 있다.